갯벌탐사·물장난 '동심' 부모은중경 사경 '불심'

제4회 현대불교 부다피아캠프 '현장'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진행한 제4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안면암에서 개최됐다. 초등학교 1~6학년 152명의 어린이불자가 참가한 이번 캠프는 참선, 예불, 부모은중경 사경,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이야기, 갯벌탐사, 바다신문 만들기, 캠프화이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제4회 부다피아캠프 참가 어린이들이 참선에 들어 내 마음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

7월 30일 아침 8시 하늘에서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장마 비속을 헤치고 모임시간인 8시 30분이 되자 서울을 비롯하여 경남 거제도, 인천, 안양, 충북 청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새싹불자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조계사에 도착했다.

지난 3회까지는 경기도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에서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진행되었지만 이번에 새 장소인 안면도로 떠나는 새싹불자들은 창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저 즐겁기만 했다.

12시쯤 됐을까, 꿈의 다리(Dream Bridge)라 불리는 서해대교가 눈앞에 펼쳐졌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는 주탑의 외형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읍내리 당간지주(보물 537호)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다리의 외형과 당간지주를 비교하며 불교조형미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것 같다.

장맛비는 그치고…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행담도 휴게소에서 점심공양을 하고, 서산과 태안을 거쳐 안면도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면도로 접어드는 순간 며칠 만에 맛보는 강렬한 태양이 작열하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밝은 날씨를 대하게 된 어린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나무석가모니불' 정근을 했다. 모두 불은의 공덕이라는 듯이.

곧게 뻗은 소나무 숲을 거쳐 안면암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한 강남 봉은사 어린이들과 선발대 선생님, 안면암 설암스님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짐을 풀고 곧바로 3층 법당에 올라가 지도법사 태설스님(봉은사 교육국장)의 집전으로 입제식을 거행했다. 태설스님은 법어를 통해 "2박3일간 부처님의 품안에서 열심히 정진하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처님 품서 2박3일

이어 조 편성을 한 뒤 담당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새싹불자들은 법당에서 혜응스님(한마음선원)에게 마음의 주인공을 찾고, 생활 속에서 마음을 관(觀)하는 방법을 배웠다.

6시, 맛있는 저녁공양을 한 뒤 저녁예불과 참선정진을 했다. 그리고 〈부모은중경〉의 부모님 10가지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31일 아침 6시. 집에서는 일어나기 조차 어려운 시각이지만 창밖으로 펼쳐져 있는 바다에는 햇님이 방긋 웃으며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탁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 친구들과 잠자리를 정리하고 즐거운 어린이체조와 아침예불로 하루일과가 시작됐다.

태설스님의 어린이 팔만대장경 강의에 이어 갯벌탐사에 들어갔다. 갯벌에는 갯지렁이, 게, 고둥, 굴, 바다풀등이 듬 들어차있다. 이처럼 자연의 보고처럼 보이지만 갯벌에 사는 생물들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혹박한 환경을 헤쳐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새싹불자들은 갯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안겨준 게 고둥 등을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바다를 주제로 그림도 그렸다.

음악…폭죽…장기자랑

오후에는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한 팀워크 훈련시간인 아외레포츠가 진행됐다. 새싹불자들은 아외스포츠 중간에 틈을 내어 조별 장기자랑도 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캠프화이어가 시작됐다. 태설스님이 전자봉으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하고 외치며 불을 붙이자 경쾌한 음악과 함께 다연발 폭죽이 하늘로 올라가고, 어린이들은 조별 또는 개인별로 장기자랑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태설스님의 어린이 팔만대장경 강의에 이어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추억을 만드는 바다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이 조별로 진행됐다.

11시 회향식 후 모두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마음껏 해수욕을 하고, 친구들과 물장난을 치며 짧은 2박3일의 일정을 끝마쳤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품속에 빠져든 어린이불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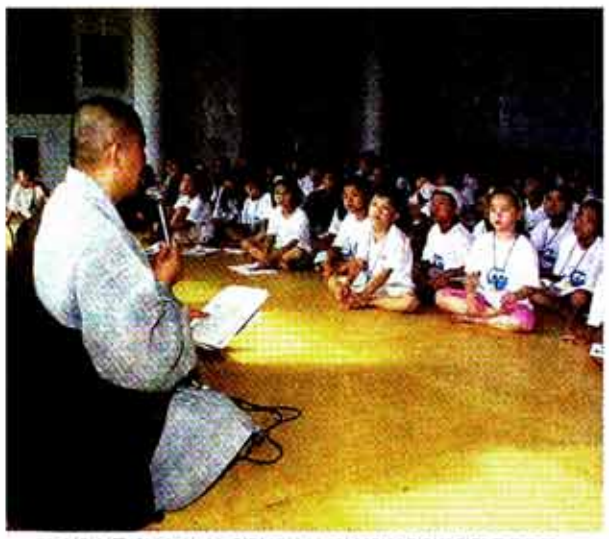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캠프장인 안면암을 뒤로하고 캠프참가자들이 갯벌 탐사를 위해 부교를 건너 우인도로 향하고 있다.



◇갯벌에 살고있는 생물들의 생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갯벌을 탐사하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태설스님의 어린이 팔만대장경 프로그램.

어린이가 만든 '바다신문'

이번 부다피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바다신문'을 만들며 캠프참가 소감과 활동 상황을 스스로 정리했다. 어린이들의 글을 간추려 소개한다.

안면암 오다 봉은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의 초등학교 1~6학년 아이들이 7월 30일 안면암으로 부다피아 캠프를 왔다. 총 152명의 학생들이 총 8조로 갈려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지민 기자

"꽃게 잡았다" 2001년 7월 31일 화요일. 안면암에서 아이들이 부교를 건너 갯벌로 갔다. 아이들은 갈 때 꽃게를 잡으며 갔다.

아이들은 갯벌을 좋아했다. 아이들은 꽃게 가재 소라 조개 등을 잡으며 신나게 놀았다. 진흙을 만지면서…, 옷이 다 젖었지만 즐거웠다. 지영 기자

부모님께 감사 부모님은 정말 감사하다. 부모님이 늙으셔도 무시하지 말고 효도하자. 부모님은 소중하다. 언제까지나 함께—.

아이들은 부모은중경을 사경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부모님생각 기자

깨트린 장독 안면암 장독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직접 파괴자는 남학생 모군입니다.

사건은 물장난으로 시작됐습니다. 장독 사이에 있던 모군은 선생님이 물을 뿌리려 들자 도망치다 운동에너지가 반동을 일으켜 장독 하나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사건이 나자 선생님들은 법당에 올라가 참회하고 장독 구입 보시금을 불전함에 넣었다는 소식입니다. 2조짱 기자

캠프화이어 캠프를 와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

장작에 불지펴놓고 우리 모두 신나게 춤추기.

불과 함께 우리들의 장기자랑, 춤추기는 재미있는 캠프화이어를 장식했다. 보경이와 혜지니 기자

대장경 어제부터 태설스님이 실시한 어린이 팔만대장경. 거의 부처님 법이지 않아요.

입정 등 부처님 법의 여러 가지가 좋아요. 내년에도 부다피아 캠프에 오고 싶어요. 배기선 이조은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급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픈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맑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육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점찰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問安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침대,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탁발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애, 베개, 원삼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탁발이, 면포 (총 18종)



▲ 오동나무 박스



▲ 향나무 박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상패증구 제도증정
수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상패증구 제도증정
안동포 七升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향나무 박스 보관함 상패증구 제도증정

※ 장례 후 본사 초공이 30% 추가 됩니다.
※ 장수이는 상세한 사진에 정확히 배당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해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